

가사노동을 통한 주부의 사회적 기여에 관한 논의*

김 선 미[†] · 이 승 미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가족복지전공
우석대학교 아동·가정복지학부 가정복지전공

The Housewives' Social Contribution Through Their Household Labor

Seon-Mi Kim · Seung-Mie Lee

**Family Welfare Major of Division of Social Welfare, Kwangju Univ.
Dept. of Child and Family Welfare, Wooseok Univ.*

Abstract

We study on the housewives' social contribution through their household labor. By the method of literature review, we discuss about the housewives' social roles, their negative problems and the private and public efforts to solve the problems, and ultimate direction to the solutions.

We find their four roles-invisible labors in this capitalist society, consumers without any sovereignty, substitutes for incomplete social welfare system and agents to develop and sustain the social network.

A few solutions which they have found out or the Korean society has devised are not enough. The utmost and ultimate solutions should include the housewives' autonomy, subjectivity and community.

Key Words : the housewives' social contribution, household labor, the housewives' social roles, invisible laborors, consumers without any sovereignty, substitutes for incomplete social welfare system, agents to develop and sustain the social network.

*이 연구는 21세기 주부문화연구소가 주최한 제1회 국제 학술심포지움에서 발표한 글을 수정보완한 글입니다.

[†]Corresponding author: Family Welfare Major of Division of Social Welfare, Kwangju Univ.,

592-1 Jinwoldong, Namgu, Kwangju, Korea 502-703

Tel 062-670-2361, Fax 062-670-2180

E-mail: yupy1005@hanmail.net

I. 서론

우리사회에서 주부는 가족과 사회를 떠받치는 중요한 노동자이면서도 적절한 보상과 가치를 평가받지 못하고 근본적으로 개인주의사회에서 개인의 선택과 자율성이 결여된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 가족과 사회에 대한 그들의 기여는 과소평가되거나 은폐되기 쉬우며 이로 인한 악순환의 결과 주부들은 주권적인 노동자로서 살아가지 못하고 왜곡된 삶을 살게 되며 따라서 주체적으로 최대한의 기량을 발휘하여 가족과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의 목적은 주부들의 사회적 역할을 조명하고 그러한 역할이 주부 개인의 삶을 속박하는 문제들을 밝히고 그러한 문제들에 대한 기존의 해결책에 대해 비판한 후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글은 기존의 연구문헌들을 토대로 다음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 주부가 가족, 사회와 맺는 관계 속에 내재되어 있는 문제들을 가사노동의 다양한 측면에서, 즉 1) 자본주의사회의 보이지 않는 노동자 2) 소비사회의 주권 없는 소비자 3) 불충분한 복지제도를 떠받치는 완충적 역할자 4) 사회관계망의 형성 및 유지의 역할자라는 네 가지 측면에서 살펴본다.

둘째, 그러한 네 가지 역할과 관련하여 파생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정된 주부들의 자구책과 사회적 대책들을 개괄한 후 그 부적절성과 미흡함에 대하여 비판한다.

셋째, 가족과 사회에 의해 대상화되지 않고 주부가 주체적인 삶을 주도함으로써 자신과 가족과 사회에 최대한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바람직한 대안의 성격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II. 본론

1. 문제 : 전업주부와 가족, 사회와의 관계 - 다양한 가사노동의 측면에서

현재 한국사회에서 전업주부들이 수행하는 다양한 역할은 무엇이며, 이러한 역할이 가족과 사회 속에서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 우리는 주부가 수행하는 다양한 역할

을 가사노동의 개념을 통해 논의하려고 한다.

가사노동의 개념은 학문영역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는데, 이미 가정학에서는 가사노동을 단순한 청소, 빨래, 요리 등의 단순한 작업 차원에 국한시키지 않고 가족원의 매일의 일상적인 생활의 영위를 위한 노동력의 재생산 뿐 아니라 다음세대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정의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생산의 측면에만 초점을 두는 재생산적 개념정의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가사노동의 관계적 측면, 혹은 가구의 지위재생산노동 및 가구서비스노동까지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광의의 개념정의에 입각하여 주부가 사적영역에서 수행하는 가사노동의 내용과 의미, 나아가 가사노동의 공적영역으로의 확대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논의하고자 한다.

자본주의사회의 보이지 않는 노동자, 소비사회의 주권 없는 소비자, 불충분한 복지제도를 떠받치는 완충적 역할자, 사회관계망의 형성 및 유지의 역할자의 네 가지 측면은 주부의 노동이 가족과 사회와 맺는 관계들을 분석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서 주부의 가사노동이 가족의 테두리에서 사적으로 행해지듯이 보이지만 가사노동의 결과가 어떻게 해서 가족과 사회를 공동체로 유지하고 존속하는지를 보여주면서 동시에 그 가치의 은폐적인 속성과 아울러 왜곡현상까지 드러내 준다.

(1) 자본주의사회의 보이지 않는 노동자

자본주의사회로의 이전에 따라 공사의 영역이 분리되고, 가족은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생산의 단위가 아닌 소비의 단위로 변화하였다. 이와 함께 남녀에 따른 성별분업 이데올로기에 의해 남편은 경제적 생계담당자, 아내는 가사담당자로 규정함으로써 주부의 역할은 사적영역으로 제한되게 되었다.

주부가 담당하는 가사노동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가족구성원의 매일의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즉 매일의 노동력을 재생산하기 위한 노동일 뿐 아니라 다음세대의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조건을 마련하는 노동(김의숙 외 2인, 1991)으로서 주부를 둘러싼 가족의 존속과 발전에 기본적인 토대를 마련해주며, 나아가 사회구성원을 양육하고 충원하는데 있어서도 필수 불가결한 노동이다. 따라서 가사노동은 주부 자신을 포함한 가족,

사회를 유지하고 계승, 발전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노동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가사노동은 사회적 노동과 달리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순환과정에 공식적으로 편입되지 못한 채, 즉 교환과정을 거치지 않고 사적인 가정에서 소비가 완결되는 특성 때문에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무보수성의 특성을 지닌다. 이러한 무보수성의 특징은 가사노동을 담당하는 주부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친다. 먼저 자신의 노동가치를 화폐라는 경제적 기준으로 평가받는 자본주의사회에서 가사노동의 무보수성은 주부의 자아정체감¹⁾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주부가 사회적 노동에 참여하고자 할 때, 가사노동의 무보수성은 저임금의 준거로 작용한다.

한편 전업주부는 노동시장의 잠재적인 노동력의 풀로, 즉 산업예비군으로 존재함으로써 경제체제에 대한 또 다른 측면에서의 보이지 않는 노동자로 작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수재를 비롯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가사노동의 성격의 노동수요가 필요할 때 무보수 노동력의 풀로 작용하게 한다.

(2) 소비사회의 주권 없는 소비자

공사영역의 분리로 가정이 소비의 단위로 부각되고, 가계담당자인 주부의 주요역할 역시 물건을 구매하고 관리하는 소비자로서의 역할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게다가 인간의 생존과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물건구매의 수준을 넘어서 매일같이 쏟아지는 광고와 상품의 홍수 속에서 필요한 상품을 적절하게 구매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고도의 소비사회에서 주부들은 점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구매결정에 투자하고 있다. 또한 구매의 결정은 가구의 총수입 중 어느 정도의 금액을 어떤 생활영역에 분배하여 소비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과 계획을 필요로 하며, 결정된 예산을 집행하는 단계에서

도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하는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식생활의 경우 주어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가족원의 영양공급을 극대화하기 위해 주부가 고려하는 사항들은 식구들의 식성, 그들의 연령과 필요, 계절에 따른 음식물의 종류 및 가격의 변화와 그에 따라 매일의 식탁메뉴를 어떻게 다양하고 싫증나지 않게 유지할 것인가의 문제 등이 포함된다. 게다가 산업의 발전으로 공해식품, 부정식품에 대한 경계 뿐 아니라 자녀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에 대한 주의, 건강을 위한 식이요법에 이르기까지 넓은 범위의 전문지식에 대한 요구 역시 주부들의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는 사항들이다. 이와 같은 매일의 장보기 외에도 생활에 필요한, 나아가 가구의 지위향상과 유지에 필요한 구매 행위도 주부들의 몫이다. 킬리와 스콧(1987)은 현단계의 가계경제를 '가족소비자경제시기'라고 부르면서 전문적인 소비 및 관리대리자의 필요성을 간파하였는데 주부가 바로 이 대리자인 셈이다. 따라서 '일하지 않는' 주부들이 많은 시간을 시장, 슈퍼마켓이나 혹은 백화점 등에서 보낼 수밖에 없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며, 우리사회의 주부들이 과소비의 주범으로 몰리고 있는 이유 역시 이러한 점에서 연유한 것이다.

또한 주부들의 이와 같은 노력들은 주어진 수입을 효과적으로 경영, 관리하여 자원배분의 합리성을 극대화하는데 뿐만 아니라 재산의 관리 및 증식의 측면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가구주의 수입이 같더라도 주부들의 재산 관리 및 증식능력 여하에 따라 가구전체의 경제적 지위는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이의 구체적인 증거로는 70년대의 부동산 투기현상에서 등장한 '복부인'에서, 최근에는 전국민의 증권투자 열풍 속에서 주부 역시 예외적인 존재일 수 없는 현상을 들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의 주부들은 가구수입의 일부인 생활비의 집행권을 남편으로부터 위임받는 것을 넘어서서 가구 전체의 공유재산을 증식시키는데 독자적으로 혹은

1) 주부의 자아정체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사노동의 특성으로는 노동과정에서의 소외, 종속성 등을 들 수 있다. 즉 가사노동은 사적인 공간인 가정에서 주부가 고립되어 혼자서 여러 가지 일을 함에 따라 동료 노동자들과 교류가 없는 노동과정에서의 소외를 경험하게 한다. 전업주부의 모든 시간계획은 남편과 자녀들의 직장과 학교의 스케줄에 맞춰지며 최근에는 구매활동과 관련해서 시장과 백화점, 대형 슈퍼마켓의 할인행사 스케줄에 따라 조정된다. 뿐만 아니라 가사노동의 산물을 가족이 향유하는 것이 주부의 기쁨이 되기도 하지만, 이는 언제나 남편과 자녀의 표준에 부합했을 때로 한정된다.

남편을 도와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문옥표(1997)의 연구결과에서도 수입 및 재산관리의 역할을 주부가 아닌 다른 가족원에 의해 수행되고 있는 경우는 전체의 23.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한국주부들의 역할과 재량권이 상당한 정도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가족내의 경제권에서 있어 주부들의 역할과 재량권이 다른 사회에 비해 크다는 사실이 곧 고도의 소비사회에서 주부가 권력이나 주권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지출에 대한 권력은 돈을 버는 사람으로부터 나오는데, 노동자로서 아무런 소득이 없는 주부가 실질적인 권력을 가질 수 있겠는가?²⁾ 간혹 남편과 상의 없이 지출을 하는 경우에도 알게 모르게 가족을 위하도록 가치가 내면화되어 있어 가족을 위한 대리인으로서의 제한된 재량권에 불과하다. 남편과 아이의 몫이 부족한 경우에 부인들은 언제나 자신들의 몫을 희생하며, 심지어 수입도 없고 대부분의 자산이 남편의 소유여서 담보를 설정할 수 없는 주부는 자신만의 용도로 돈을 빌릴 수도 없으므로 주체적인 소비자의 조건이 되는 구매력이 없다.

대규모 소비사회는 소비기구를 전제로 하는데 전업주부집단은 바로 새로운 상품을 인지하고 자신의 소유품을 낡은 것으로 판정하며 계속해서 대체품과 신제품을 구매하는 기구로서 활용된다. 하이디 하트만(1973)은 세탁기와 세탁소의 경쟁과정에서 세탁기가 승리하고 세탁소의 업무가 축소되는 과정을 통해 그리고 이 과정에서 신용을 기업이 제공하는 과정을 통해 역사적 실례를 제공하면서 자본제시장이 어떻게 가정을 활용하여 보다 많은 소비재를 판매하고 스스로 존속해 가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는데 이 때 가정의 대표소비자가 바로 주부이다.

최근 가격경쟁의 결과로 생겨난 대형할인점들은 인건비를 절약하는 대신 물건가격을 낮추어 주는데, 가족의 금전관리를 전담하고 있는 주부는 가격이 싼 할인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면서 이전에는 점원 또는 가게주인이 대

신하던 물건 찾고 고르고 운반하는 일을 하면서 노동력을 착취 당하게 된다. 소비혁명의 제도적인 자리가 된 백화점과 그 속에서 주부가 떠도는 욕망을 자극 받으면서 지속적으로 소비계획을 내면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맥크레켄(1994)이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어디에서도 인정과 대접을 받지 못하는 주부들에게 '슈퍼마켓에서 길을 잃는' 그런 일이 초래되는 것이다. 이것은 흔히 강박적 구매성향으로 드러나기도 한다.

소비시장이 여성자체를 상품화함으로써 여성을 대상화하는 일을 해왔음도 지적해야 한다. 아줌마로 불리는 전업주부들은 무성성의 오명을 벗기 위해 각종 여성스러움과 관련된 마케팅의 희생양이 된다. 현대적 가정은 소위 청결하고 부드럽고 온화한 여성적 이미지의 실내장식을 지향하며 많은 소비재들이 이런 이미지를 위한 것이고 집을 잘 꾸미는 것이 주부의 의무라는 것이 가정성 이데올로기의 한 가지 내용을 이룬다. 또한 주부자신도 여성성을 가꾸고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시장세분화에 의해 더 많은 소비재를 구매할 것을 강요당하고 있다. 백화점 서둘버스는 주부들의 일과에 끼여들어 주부들을 길 들인다. 최근 들어 우리 나라에 부상하고 있는 신현모양치론도 높은 교육수준과 일정한 소비능력을 갖춘 주부들이 자기 가치를 확인하려고 하는 욕망을 소비욕구로 대체시키기 위해 만들어 낸 새로운 상품과도 같다고 한다(이선옥, 1997:214).

소비사회에서 집합적으로 주부집단은 그 유지를 위한 기구로서 작용하면서도 실질적인 권력을 갖지 못하며 대상화되고 수동성을 띠으로써 자기 이미지를 부정적으로 만드는 순서 안에 다시 들어간다.

(3) 불충분한 복지제도를 떠받치는 원충적 역할자

한국사회는 서구와 달리 여전히 뿌리깊은 유교적 전통과 가족을 단위로 하는 집단주의적 전통에 근거하여 가족에게 사회구성원의 부양을 책임지게 하는 특성을 지닌다. 이는 한국인의 저축동기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한국 소비자보호원이 전국 20~60세 남녀 2,996명을 대상으로

2) 남편은 총괄적인 권한을, 부인은 도구적인 권한을 가진다고 한다. 그리고 아내가 반대한다고 해서 남편이 못하는 일은 거의 없으나 남편이 반대하기 때문에 아내가 못하는 일들은 많다. 이것을 부정적 권위라고 한다(한경혜, 1994)

조사한 <국민소득 행태 및 의식구조 조사>를 보면 저축의 목적은 주택마련(33.8%), 자녀교육(23.2%), 노후대책(19.3%), 자녀 결혼준비자금(13%), 사고대비(10.7%)의 순으로 나타나(류승호, 1994에서 재인용) 한국인의 저축을 증대는 복지제도의 부재에 대한 가족단위의 대응에 따른 결과임을 보여준다.

복지제도의 부재를 보완하기 위해, 개별가정은 그들의 살 공간인 주택마련에서부터 자녀교육 뿐 아니라 심지어 자녀의 결혼자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용도를 위한 비용 마련에 힘써야 하며, 자신들의 노후에 대한 대비 역시 스스로 마련해야 하는데, 이와 같은 노력은 가정내의 주부가 그 책임과 역할을 전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이제껏 대규모 전업주부집단의 존재로 인해 영유아의 보육과 장애자와 노인의 부양이 가족 내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이런 부양분야가 사적인 개별 가정의 의무로 당연시되어 왔으나 최근 기혼여성들의 취업이 증가함에 따라 이상과 같은 부양역할에 대한 공백으로 많은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의 대표적인 예로 자녀양육의 문제, 노인 및 장애인 부양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청소년 범죄나 탈선, 버려지는 아이들과 노인들의 문제가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사회일각에서는 이러한 문제원인을 기혼여성의 취업으로 돌리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난은 인과가 뒤바뀐 것이며 오히려 그 동안의 주부들의 가사노동이 국가 사회의 불완전한 복지제도를 보완하는데 드러진 점을 보지 못한 사실만 드러내고 있다.

해결방식에 있어서도 공교육을 강화하고 부족한 탁아시설의 확충, 노인부양을 위한 시설과 제도마련과 같은 공적인 복지제도가 가족을 보호하고 보완해주는 서구선진사회의 문제해결방식과는 달리 전통적인 가부장제 이데올로기, 그리고 모성이데올로기를 동원하여 취업여성을 갈등상황으로 몰아넣는 결과를 낳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사회의 교육제도는 부족한 교사를 보완하는 역할자로 어머니를 상징하여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으며, 전업주부들로 구성된 학부모회 역시 학교의 부족한 재정과 노동력을 충원하는 창구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³⁾. 전업주부의 학부모회활동은 자원

봉사활동의 외형을 지니지만, 실제 활동내용의 성격을 살펴보면 교사를 보조하는 역할-일일교사, 소풍과 운동회 등의 참여, 급식보조 등-에서부터 교실의 환경미화에 이르기까지 가정내의 가사노동이 가정 밖의 공적 영역으로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주부의 사적인 가사노동이 공적 영역으로 확대된 또 다른 방식으로 국가주도의 기관이나 공공단체에서 주관하는 다양한 자원봉사활동에 많은 전업주부들이 동원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4) 사회관계망의 형성 및 유지의 역할자

주부가 담당하고 있는 '집안일', 즉 가사노동의 또 한 가지 중요한 항목은 주변사람들과의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해 나가는 데 들어가는 노력이다. 잘 유지된 인간관계의 망, 즉 사회적 네트워크는 살아가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를 교환하고 필요한 때에 구체적인 도움을 기대할 수 있는 관계로서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데 있어 귀중한 자원이 된다.

한국사회의 경우 외형적으로는 핵가족의 형태를 띠지만, 가부장적 전통이 강하고 친족이나 혈족간의 유대가 여전히 중요하기 때문에, 부계쪽, 모계쪽 친척들과 자녀들의 혼인으로 맺어진 사돈간에 정기적이고 일정한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하며, 이 역시 주부가 그 역할을 전담하고 있는 실정이다(문옥표, 1997).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따로 사는 부모님들에 대한 정기적인 방문, 선물의 교환, 생일, 결혼, 제사, 장례 등에 일손을 돕거나 방문하고 보조하는 일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된다.

또한 반상회와 같은 공식적인 모임 이외에도 아파트의 주부들은 이웃의 주부들과 서로 항상 필요할 때 도움을 기대할 수 있는 지속성 있는 친근한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마지막으로 주부들은 남편의 개인적인 사회관계망의 유지-가족의 지위재생산의 역할-에도 일정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은 주부들의 서비스 내용은 남편의 친구들을 접대하는 일, 직장동료나 상사들을 집에

3) 여기서 취업한 주부는 시간부족 때문에 자녀의 공부를 충분히 돌봐주지 못하거나 학부모회 활동에 참여하지 못함에 따라 또 다른 죄책감과 열등감에 시달려야 하는 고통을 안고 있다.

초대하는 일, 남편의 직장이나 기타 사회적 역할에 관련된 모임에 동반하여 참석하는 일 등 여러 가지를 포함한다. 이와 같은 주부의 내조는 남편의 승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적성이 맞지 않는 주부는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현상이 가장 극심한 영역이 군대로, 남편의 계급서열이 곧 부인의 서열로 그대로 적용되는 상하수직관계를 형성할 뿐 아니라 높은 서열의 집안대소사에 일을 거들기 위해 모여드는 모습에서 그 전형성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거의 모든 사회적 관계망은 가족의 유지 발전과 관련 없는 것이 하나도 없고 가족의 이익과 관련될 때에만 허용되거나 심지어 강요되는 측면이 있다.

2) 한국사회에서의 주부문제에 대한 연구결과의 종합적 검토

이상의 논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사회에서 주부들은 자본주의사회의 보이지 않는 노동자로서, 그리고 소비사회의 주권 없는 소비자로서 자본주의적 경제체제를 지지하고 순환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가사노동을 통해 가족구성원의 매일의 노동력 뿐 아니라 다음세대의 노동력을 재생산하기 위한 조건을 마련함으로써 가족 및 사회의 존속 및 계승,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다. 또한 주부들은 불충분한 복지제도를 보충하는 완충적 역할을, 사회관계망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역할을 담당 등의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다양한 역할들이 자본주의와 가부장제, 그리고 국가권력의 통제하에 교묘히 활용되고 있는 부정적 측면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된다. 즉 가사노동의 무보수성으로 인해 주부는 경제체제에 있어 저임금의 노동자로, 그리고 산업예비군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소비사회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서 주부들은 주권 없는 소비자로 전락하고 있다. 또한 국가권력은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와 모성이데올로기를 동원하여, 그리고 주부의 가사노동이 무보수적이라는 특성을 활용하여 부족한 복지제도를 보완하는 인력으로 충원하고 있으며,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주부의 노동력을 무보수로 착취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와 같은 논의는 다음의 연구들에서도 부분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먼저 취업여부를 막론하고 기혼여성들

을 일컫는 '아줌마'에 관한 최근의 논쟁을 통해 한국 전업 주부의 부정적 이미지를 간접적으로나마 살펴볼 수 있는데, 참여관찰을 통해 우리사회의 아줌마담론을 분석한 이 선(1999)에 따르면, 한국 사회 기혼여성집단이 갖는 '아줌마'라는 가상의 정체성의 특징은 권력에서의 周邊性과 소위 여성다움과 관련한 無性性이며 그러한 정체성을 갖게 된 이유를 한국의 90년대 소비자본주의와 가부장제라고 하고 있다. 그는 주부는 생산의 기능이 없어진 가정이 일차적인 자리이며, 필요에 따라 취업을 하는 경우에도 성분절적 노동시장에서 여성적인 일하면서 저임금에 승진의 기회도 제한되고 노동조건도 열악한 이차시장에 간헐적으로 충원되는 주변적인 노동자요, 여성다움의 가치를 최후로 부르짖는 소비자사회에서 여성성이 없는 제 3의 성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한국 주부를 연구·관찰한 하트 테니스(1990)는 주부라는 말은 "개인의 정체감을 구체화시킴으로써 의존성을 낳는 언어적 함정"이므로 용어자체를 사용하지 말자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주부는 현대 가정을 전제로 하며, 또 그 가정에 속한 남편을 전제로 한다. 그러므로 주부는 자신의 사회적 정체감이 남편의 지위에 따라 결정되고 유지된다. 자기 자신 자체로는 사회적으로 아무 것도 아닌 존재이다." 그는 안사람과 주부라는 말을 비교하면서, 두 용어 사이에 시장경제체제로의 물질적 변화가 있고 거기에서 문화적 지체현상을 보이는 주부들에게 국가가 교과서를 통하여, 그리고 각종 매스컴 등을 통하여 안사람으로서 하던 생산적인 노동과 관련된 경험의 축적과 기술을 비하하고, 현대 소비자사회의 제품사용과 관련된 지식과 노동을 합리적인 것으로 선전함으로써, 변화에 적응하도록 개입하는 과정을 논증하였다. 그는 생산의 기능이 박탈된 좁은 아파트에 사는 중산층의 전업주부들이 문화지체현상으로부터 고통받는 모습과 남편들의 물이해를 지적하고 있다.

20세기 한국의 부끄러운 자화상으로 가부장제를 든 이승희(1999:301)는 자본주의와 가부장제의 상호작용이 낳는 성별분업식 결혼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설명하고 있다. 스스로 먹고 입고 자는 가사노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남성과 스스로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여성의 결합은 상호의존적인 관계이면서도 일방적 의존으로 은폐된다. 진정한 문제는 숨길

수 없는데 이러한 결혼은 둘 다에게 서로 부담이 되는 관계이며 그 때 전업주부의 문제란 남편에게 의존되어 경제적 자립의 능력이 박탈된 주부의 이미지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한국 사회의 특수성과 맞물려 드러난 전업주부문제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① 많은 일을 하면서도 자본주의사회에서 생산적 노동자로서 개인적 정체성을 갖지 못하고 그에 따라 사회적으로 경제적인 무능력자로 인식되어 낮게 평가를 받는 문제 /
- ② 가족 내에서 평등한 동반자로서 부부관계가 어려우며, 자원의 배분에서도 불이익을 감수하며, 남편과 자녀라는 가사무능력자들이 의존되어 있는 문제 /
- ③ 소비시장과 국가사회기구들에 수동적으로 의존되고 착취당하는 문제

2. 대안 : 기존대안의 소개와 바람직한 대안에 관한 논의

이제 위에서 본 다각적인 문제들은 주부들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인식되고 있고 여러 가지 자구책이나 대책들이 강구되고 또 실험되고 있다. 그러한 여러 가지 해결책들의 성격과 한계점들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대안들의 필요조건을 고려해 보고자 한다.

1) 주부들의 자구책이나 사회의 대책에 대한 비판적 소개

노동자로서의 주부의 가사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기 위해 가정학자들과 여성학자들은 가사노동을 화폐가치로 환산하고 그를 공표하고 있으나 주부들의 의식에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거나 각종 보상문제에 그러한 평가들이 반영되기에는 타당하고 일치된 논의가 결여된 상태이다.

소비사회의 문제를 처리하고 영향력을 발휘해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 소비자단체에서 주부들의 활동을 수렴하고 있다. 그러나 참여하는 많은 주부들은 또 다른 매카니즘에 의해 대상화되기 쉽고 또 그러한 활동들이 크게 효과적인 지는 의문이다.

주부들의 취업증가로 인한 복지의 공백을 채우려고 복지제도들이 마련되고 있다. 그러나 모성이데올로기로 인해 자주 사적인 방법으로 해결책들이 찾아지고 다른 여성들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방식들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관계망의 형성 및 유지에서 받는 주부들의 갈등은 직접적인 노동력의 투입은 다소 시장제로 대체되고 있다고 해도 관계적인 측면에서의 정신적인 노동이나 신체적인 참여가 줄지 않아 여전히 억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거시적인 여건 속에서 주부들의 정체성의 문제와 그로 인하여 가정에 미치는 좋지 않은 영향 즉 핵가족 사회에서 부부가 서로 동반자가 되지 못하고 또 소비사회에서의 새로운 변화에서 문화지체현상을 보이는 전업주부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전업주부들과 사회는 이제껏 어떤 해결책들을 찾아 왔던가? 불만을 털어 버리고 감정을 해소하며 또 필요한 정보도 주고받기 위해 각종 관계망을 통해 일상적으로 수다를 떠는 일, 사회변화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주부를 대상으로 한다는 각종 모임들에 참여해 보는 일에 이르기까지 주부들은 나름대로의 해결책을 찾아 왔고 주부를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운동들도 나타났지만⁴⁾, 전업주부들의 문제를 인식하고 그 해결을 위한 정부의 종합적인 정책은 찾아보기 어렵다⁵⁾.

4) 주부를 대상으로 하는 보수적인 단체로부터 진보적인 단체들이 표방해온 이념과 활동에 대해서는 보다 치밀한 정리가 앞으로 필요하다. 지난해 “NGO에서 주부회원의 활동이 왕성”이라는 제하에 소개된 소위 “단체마다 주부회원들이 대거 참여해 완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소식은 주부가 참여하는 운동이야말로(시민 있는 시민운동)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왕성하기보다는 이제 겨우 맹아를 보이는 수준인데 다음은 단체의 이름과 주부참여현황 및 활동의 내용들이다.

- 참여연대의 회원사업국은 주부들이 도맡아 일을 처리하고 재원마련을 위한 수익사업도 펼침 - 환경운동연합 : 15명의 주부환경지킴이 일회용품 안쓰기 운동 - 10명의 경실련 여성위원회 유기농산물 재배현장 방문 현장학습 “주부가 주체가 되는 생동감 있고 정겨운 시민운동을 펼치고 싶다.” - 그린체밀리운동연합의 1500여명의 녹색소년단원 어머니들로 구성된 자모회(지역 생태조사를 통해 환경의 소중함을 자녀들에게 깨우쳐 주고 무공해 작물재배법을 배워 실천하는 등 환경운동에 앞장섬)(한겨레신문 1999년 5월 2일 18시 58분 www.hani.co.kr).(경향신문 1999년 7월 5일)

5) 거시적인 사회구조적 억압의 고리가 끊기기 위해서는 시민권의 차원에서 주부의 의무와 권리를 고려하는 정부 차원에서의 주부정책이 필요하나, 현재 여성노동정책에서는 주부의 문제가 완전히 배제되고 있다고 한다(한국여성민우회, 1999:75).

여기에서는 주부들이 여가활동을 통해 사회적 경험을 하는 것을 경험담을 통해 분석하고 있는 글을 통해(강정희, 1994), 주부들이 하는 활동의 한계와 가능성을 살펴보자. 가정 밖의 여가활동의 경험을 취미오락활동형과 강습형 및 사회활동형으로 나누어 보고 있다.

그러나 세 가지 형태의 여가활동에 대한 경험들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취미오락형 여가활동은 사회적 관계망을 확대하지만 소비지향으로 흘러 자율적인 삶의 실현과 배치되기 쉽고, 강습형 여가활동은 지적 능력의 한계와 목적의식의 결여로 인해 전문적인 능력을 기르는 데까지 이르지 못하며, 일상생활에서 자녀교육에 보탬이 되는 정도로 귀결된다고 한다. 그리고 사회활동형 여가로 주부들이 종교활동에 매몰되는 현상은 종교가 가부장적인 가족제도를 지지하는 경향 때문에 지나치게 열심을 내지 않는다면 가족 특히 남편으로부터 제약이 덜하다는 사실과, 주부의 각종 열악한 상황을 인내하고 체념하도록⁶⁾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김동춘(1999:315)은 사회적인 측면과 연관지어 볼 때, 우리 나라 기독교는 원자화된 가족들의 해방의 축제였지 사회적 정치적 변혁과 무관하게 성장해 왔다고 지적한다.

또한 사회봉사활동형의 두 번째로 자원봉사활동이 주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상담이나 고아원, 양로원 등의 방문과 같이 주부의 전통적인 성역할에 적합하고 가족문제와 관련된 분야에의 참여가 단순히 노동력만 제공하는 일로서 "집안일과 다를 바 없는 단순작업"이며 아무런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적하고 있는데, 바로 그러한 한계 때문에 자원봉사활동은 지속되기 어렵다. 사실상 시민단체관계자들 중 상당수는 전업주부를 저기술, 무보수 자원활동의 풀로 간주한다. 이런 시각에서 볼 때, 한 주부 한 주부는 일회용 자원봉사자일 뿐이다. 그는 긍정적인 영향이 드러난 자원봉사활동분야는 전문지식을 습득하여 집약적으로 활동함으로써 주부들이 잠재력을 발휘하고 자신의 정체감을

확인하는 계기를 즐겼더라 지식의 증가와 성격의 변화, 의식의 변화 등을 통해 가족관계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주고 가족이기주의로부터 벗어나는 계기를 주는 분야라고 한다. 그러나 전업주부들이 이러한 분야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것은 아주 드문 경우로서 앞으로 전업주부들의 자원봉사활동의 방향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

2) 바람직한 대안의 모색에 관한 논의

전업주부의 삶 전반에 그리고 그들과 관련된 세계의 곳곳에 들어있는 불평등의 문제와 타율성의 문제를 푸는 것은 모든 성원이 평등한 민주적인 사회를 이루는데 반드시 필요하며, 그 결과 여성의 지위가 향상될 뿐 아니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불평등한 구조로부터 이득을 얻는 것보다 여성의 평등화를 통해 반사적으로 더 큰 이익을 체험하게 할 것이라는 믿음 위에서 대안을 생각해 보자.

궁극적으로는 성차별적 여성노동시장의 관행이 변화하여 남성과 여성에게 고용의 기회가 평등하게 주어짐으로써 전업주부직은 소멸되어야 하며, 그 경우 시장노동과 가사노동을 배우자가 분업을 하기로 한 경우에도 종래의 고정적인 성별분업이테올로기에 따라서가 아니라 상대적인 시장임금획득능력이나 두 가지 일에 대한 선호를 포함한 기회비용개념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다. 그러나 남녀가 노동시장에서 평등한 기회를 갖도록 노력하는 여성운동의 성과를 기대하고 함께 힘을 모으는 동시에 앞으로 상당한 기간동안은 잠정적으로 대규모 집단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⁷⁾ 전업주부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를 한 번 생각해 보자.

바람직한 대안이 지녀야 할 방향성에는 개인적 차원에서 주부가 자본주의 소비사회에서 가족과 사회의 보조자의 위치에서 주체자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노동자에서 가치를 인정받고 스스로 가치를 인정하는 노동자가

6) 심영희(1996:45)도 율분과 저항을 흡수하는 베커니즘으로 작용하여 제도로서의 모성을 비판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종교활동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7) 조은(1997:160)은 중산층기혼여성들이 가정주부로 머물러 있는데 대해 불만을 표시한다는 점을 들어 한국의 중산층 여성들이 미국이나 일본 등 다른 산업국의 중산층 여성들에 비해 가정성 이데올로기(domesticity ideology)를 비교적 빨리 벗어나고 있다는 해석을 하였으나, 문옥표(1997:227)는 현재의 한국경제의 고용구조 및 한국사회발전의 수준에서 볼 때 그와 같이 언어로 표현되는 불만이 과연 어느 정도 실제의 취업이나 기타 다른 형태의 공적 영역참여로 연결될 것인지 불확실하다고 보았다.

되는 것이다. 가족과 사회에서 자율성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모든 구성원의 의식과 행동이 변화하여 평등하고 조화로운 삶을 누구에게나 보장하는 새로운 균형을 찾아야 한다. 그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진정한 공동체성이 회복되고 사회의 방향을 스스로 주도하는 주권의 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보면, 우선 간헐적으로 있어왔던 일이지만,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의 가치를 매 화폐가치로 산정하여 매체를 통해 발표함으로써 주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전업주부가 의존적이고 무능력한 그리고 비생산적인 존재가 아님을 인식시키는 것은 어떨까? 산정방식에 따라 과소·과대 평가될 수도 있으나 이 방식의 효과에 대해 합의가 된다면 표준화작업을 통해 몇 가지 전형적인 사례를 예로 삼아 최대치와 최소치를 공개하는 방법을 제안해 본다.

그 다음으로는 전업주부로서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또는 문제점들을 공유하고 함께 해결해 갈 수 있도록 주부공동의 조직화가 필요하다. 아파트 부녀회와 같이 거주지역에 기반을 둔 공동체활동으로부터 사이버상의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대안은 다양하다. 페이스 팝콘(1999)은 유유상종트렌드를 미래의 중요 트렌드로 꼽고 있는데, 같은 처지에 있어 유사한 과제를 안고있는 주부들끼리 상호영향을 미치며 상호 돌보며 상호 가르칠 수 있는 다양한 공동체가 형성된다면, 각 성원들의 재능과 체험이 공유될 것이며, 중요한 가치를 담은 저항적인 활동 예를 들면 자신의 자녀가 다소 낮은 점수를 얻더라도 숙제 대신 해주지 않거나 좀 더 값비싼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소비한다든지 하는 활동들에 대해 격려 받을 것이며, 공동체적으로 발견한 문제들에 대한 공론화를 통해 정책의 변화에 중요한 투입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사이버공간의 사용자들에 포함되는 20대말 30대의 주부들은 사이버상의 주부동아리를 통한 공동체 형성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들어 민우회 주부운동의 경우 “주부운동의 연대

지점을 주부의 정체성으로부터 다른 경험을 상이한 활동 영역에서 다른 맥락으로 펼쳐고 있는 변화를 지향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지자체로 전환하였다”고 한다(김종미, 1999:72). 그러나 아직도 전업주부문제자체를 해결할 운동체가 필요하다고 볼 때, 만약 사이버공간을 통한다면 그리고 사이버공간의 특성을 살려 많은 주부들의 다양성을 묶어낸다면 현장에서 드러났던 한계(김종미, 1999:70) 즉 “자신의 가정에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동하고자 하는 소극적 태도”를 가진 주부들의 활동도 가능하게 되며 “주부들간의 입장 차이” 등도 극복할 수 있으며 주부의 정체성을 근거로 한 연대감의 형성과 변화의 시도가 가능할 것이다.

이 때 공동노력의 내용이 되어야 하는 것에는 첫째, 성찰을 통해 자신들이 살고 있는 삶의 비자율성과 의존성을 돌아보며 그 원인에 대한 거시적이고 구조적인 통찰을 갖는 것과, 그들의 노동이 사회의 유지발전에 어떤 식으로 기여하는지를 인식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같은 입장의 주체간 의사소통과 공동체성을 통하여 사회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둘째, 가사무능력자인 남편과 자녀들의 가사분담과 가사공유를 통해 그들 스스로를 돌볼 수 있도록 성숙시키며, 새로운 가족문화를 창달하며 전수한다. 어느 정도는 가사노동 전담량을 줄일 수 있고 부부간, 부모자녀간에 같은 일을 통해 같은 경험을 하고 의사소통의 양을 증가시킬 수 있는 좋은 효과를 갖는다. 주의할 점은 주부들의 너무 높은 표준과 가사노동에 붙여진 허위적인 전문성⁸⁾이 방해요인이 될 수가 있다는 점이다. 레이 안드레는(1987:77-101), 먼저 가족들에게 요구할 것, 그리고 가정주부자리를 사퇴할 것을 충고한다. 각급 학교 교과과정에서도 가정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양성성을 실천적으로 획득하게 하는 과목을 강화해야 하며, 대학에서도 ‘결혼과 가족’과 같은 과목을 활용하여 이러한 분담의 필요성을 일깨울 수 있고 그 효과를 각인시킬 수 있다.

셋째, 사실은 가정이 할 수 있는 기능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학교가 할 수 없는 아니면 소홀히 하고 있

8) 루스 코완(1983:249)은 ‘주부일 감소시키기’부분에서 허위적인 전문성의 유포에 대해 폐기할 부분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즉, 세탁의 규칙과 같이 어떤 한 집단의 사람들이 규칙을 유포시키므로써 허위적인 전문성을 창조하여 모두에게 개방되어야 할 직종으로부터 일부 집단의 사람들을 소외시켰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는 가치의 전수라고 할 수 있는데, 애정에 근거할 때만이 최상의 교육이 가능하다. 주부들이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할 때, 인간적인 삶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영혼을 쏟아 넣는 것이 가능하며 양성 평등적인 가치관의 전수와 양성 평등적인 방식으로 자녀를 대하는 것을 통한 간접적인 교육이 가능할 것이다.

넷째, 시장의존으로부터 시장활용으로 그리고 소비자주권의 회복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다. 소비측면에서 짧은 기간에 서구 산업화의 영향을 침례 받음으로 말미암아 빠지게 된 수동성에서 탈피하여 시장에 힘을 미쳐 소위 바람직한 소비, 지속 가능한 소비를 담보하도록 소비시장에서 주권을 회복하여야 한다. 현재 상태에서 주부들은 구매력과 상품에 대한 평가를 가지고 있으므로 공동의 힘을 구사한다면 충분히 바람직하지 못한 상품들의 생산과 유통을 막을 수 있다. 일본에서 "사서는 안됩니다."라는 책이 최근 각광을 받는 것을 보면 소비사회의 모순을 생활세계에서 개개 소비자들이 인식하고 있던 것이 표출된 것이다. 이 책은 전문적인 연구자들이 상품효과의 위해성과 과장성 등을 파헤쳐 공개하고 소비자들은 그 책의 구매를 통해 해롭고 터무니없는 상품은 사지 않겠다는 일종의 투표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이러한 주권과 관련된 성공적인 사례는 참교육학부모회와 학부모연대 등 학부모단체⁹⁾의 경우나 생활협동조합의 경우를 들 수 있다¹⁰⁾.

III. 결 론

주부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실천을 전제로 한 연구자들의 연구와 관여의 필요성은 실험해 볼 만하다고 할

수 있다. 학문의 고유한 기능에 비추어 볼 때 사실에 대한 정확한 기술과 설명으로부터 예측과 처방이 가능함을 상기할 때 전업주부들의 삶에 대해 아직 알려지지 않은 많은 원인들을 제대로 규명하는 것은 연구자들의 몫이다. 사실 지금까지 실천적 학문을 내세웠던 주부관련 학문이 주부들의 삶의 현실을 다만 가부장적 자본주의 가족을 위해 기능적인 측면에서만 부분적으로 파악한 경향이 컸고, 여성주의적 관점을 가진 연구자들의 경우에도 실천을 전제로 한 통합적인 연구에는 많은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고 자성하고 있다.

주부공동체와의 상호의사소통을 통해 연구자들은 절실히 필요한 연구주체들을 얻고 올바른 연구성과들을 얻어 내며, 주부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객관화하고 체질의 해석만으로는 알기 어려운 숨겨진 구조적 기제들 그리고 비교문화적인 관점과 역사적인 관점에서 제시되는 대안들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긍정적으로 평가받는 각종 주부들의 공동체적인 활동에 구체적인 주부들의 참여현황을 밝히고 그로 인하여 가사노동수행양식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주부들의 정체성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또한 그들의 공동체적 노력이 사회에 바람직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검토하여 문제해결에 있어서 공동체적인 노력의 가능성과 한계점이 제시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연구자들의 사회봉사활동이 강조되고 있는 풍토에서 주부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사회교육과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의식 있고 지적으로 준비된 연구자들이 참여하여 주부들에게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고 개발된 대안을 제시하며, 주부들이 세력화되어 자신들의 대표를 보내기 전까지 매체를 통해 주부의 입장을 대표할 수도 있다.

9) 참교육학부모회와 학부모연대 등 학부모단체 설립 전까지는 학교에서의 학부모역할은 육성회원으로 재정적인 후원을 하는 게 전부였으나 이들의 활동이 본격화되면서 정부도 학부모역할에 공감해 지금으로부터 2~3년 전부터는 공립 초중고교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기에 이르렀고 학부모들이 마침내 교사 학생과 함께 교육주체로서 학교운영에 제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한겨레신문 1999년 3월 2일 22시 30분 www.hani.co.kr).

10) 생협은 양질의 물건을 힘을 모아 값싸게 사는 지난날의 소극적인 소비자운동에서 한 걸음 나아가 기존의 생산업체로 하여금 환경에 해를 줄이는 물품 화학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안전한 물품이 생산되도록 요구하는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유기농산물의 직거래활동으로 가족의 생명을 농약으로부터 지키고 환경물품의 소비를 늘리며 보건의료와 공동육아, 이발소 미용원 예식장 장의업 등 복지시설들을 운영하여 복지환경을 개선함. 지역문제를 함께 풀어나가는 각종 교양강좌를 통해 평생교육의 장을 마련하는 등 문화복지활동과 공제사업 소비자보호 및 정책제시 연구 및 출판사업 등 조합원개인으로서는 할 수 없거나 혼자서보다는 협동해서 더 잘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활동의 대상으로 합니다("생활협동조합을 소개합니다."에서)

참 고 문 헌

- 김동춘(1999). 20세기 한국의 부끄러운 자화상: 가족이기주의. **역사비평**. 여름호, 309-319. 역사비평사, 서울
- 김외숙·이기영·최은숙(1991). **가족자원관리**. 한국방송통신대학 출판부, 서울
- 김종미(1999). 주부, 아줌마, 여성운동. **여성과 사회**, 제10호, 58-72. 창작과 비평사, 서울
- 김혜숙·김은희·김향원·유철인·장현섭(1999). 한국 가족/친족 연구의 쟁점: 도시 중산층과 제주도의 가족/친족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11(1):1-22.
- 레이 안드레(1987). **가정주부-보이지 않는 노동자들-**. 한국여성개발원, 서울
- 류승호(1994). **한국사회이야기 주머니**. 녹두, 서울
- 문옥표(1997). 도시중산층의 가족생활과 주부의 역할. **성, 가족 그리고 문화**, 189-234. 집문당, 서울
- 심영희(1996). 시간문화와 여성. **생활문화에 대한 여성학적 고찰**, 3-52. 한국 여성학회
- 윤택립(1996). 생활문화속의 일상성의 의미:전업주부의 일상생활 구성을 통하여. **생활문화에 대한 여성학적 고찰**, 205-242. 한국 여성학회
- 이 선(1999). 담론이론을 통해서 본 '아줌마'의 상징성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인류학과 석사학위 논문
- 이선옥(1997). 신 현모양처 이데올로기의 부상. **여성과 사회**, 211-220. 창작과 비평사, 서울
- 이승희(1999). 20세기 한국의 부끄러운 자화상: 가부장제. **역사비평**. 여름호, 299-308. 역사비평사, 서울
- 이재경(1994). 한국사회의 반사회성. **철학과 현실**, 가을호. 철학문화연구소, 서울
- 조혜정(1997). 한국의 가부장제에 관한 해석적 분석. **성, 가족, 그리고 문화**, 9-72. 문음사, 서울
- 존 맥크레켄(1994). **문화와 소비**. 문예출판사, 서울
- 페이스 팝콘 등저, 조은정 등역(1999). **클릭! 미래속으로**. 21세기북스, 서울
- 하트 테니스(1990). 한국주부: 시장경제체제하에서 변화하는 여성의 사회적 역할. 한국 여성개발원
- 한경혜(1994). 동반자적 부부관계 정립을 위한 소고. **여성연구**, 제44호: 87-105
- Celia Lury(1997). *Consumer Culture*. Rutgers University Press
- Heidi I. Hartman(1974). *Capitalism and Women's Work in the Home*. Yale University. Ph.D. Xerox University Microfilms, Ann Arbor, Michigan
- Louise A. Tilly and Joan W. Scott(1987). *Women Work and Family*. Macmillan Inc. co, New York